

NH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그룹 차원 소비자보호 의지 강화...교육·점검·소통 프로그램 운영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지난 3월 9일,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위해 금융지주 최초로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금융은 매년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 포함된 주

의 첫 영업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금융소비자 보호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각 자회사에서도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농협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소비자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소비자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점검·소통을 결합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EO 메시지 공유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천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지수 종합평가 결과와 제도개선 사례, 대외 홍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 우수 자회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찬우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규제 대응을 넘어 금융회사의 신뢰를 좌우하는 기본가치"라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이번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행사를 연 1회 정례 개최하고,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계해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원·충주시·연구기관·농협 등 7개 기관 '중원진미' 보급 협약 체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3월 9일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 지역대표 쌀 신품종 '중원진미'의 종자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충주시, 국립식량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사)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서충주농협협동조합, 산척농협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벼 수요자 참여 개발 품종(SPP,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확산 시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국내에서 육성한 벼 품종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우리 품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충주 지역 환경에 적합한 브랜드 쌀 품종을

육성해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중원진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전주601호(드래곤펀)'와 '전주605호(북합 내병충 계통)'를 교배해 2024년 개발한 벼 품종이다. 국내 최초로 벼멸구, 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 모두 저항성을 지닌 북합 내병충성 품종으로 병해충에 강하면서도 쌀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중원진미'의 기본식물을 유지·제공하고,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원원종(가장 기초가 되는 씨앗)을 유지하며 신기술 보급과 전문교육,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이(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지난 9일 서울 중로구 소재 농협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수 자회사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진원·충주시·연구기관·농협 등 7개 기관 업무협약체결(농진원 제공)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기술보급 공동협의체' 출범

농가 체감형 기술 확산 체계 구축...연구 성과 신속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연구개발-기술보급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경 차장(위원장)을 비롯해 실·국장, 분과장 등 공동협의체 회원 36명이 참석해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목표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분과별 관리과제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연구 사업 공동 기획, 조기 보급 사업화 과제

관리 및 소통·협력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동협의체는 식량, 원예, 축산, 스마트농업, 바이오푸드테크, 농업인안전, 치유·농촌, 병해충, 기후·환경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연구 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구 기획 단계부터 보급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급 사업화 검토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연구와 보급 협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개발 기술 보급 기간을 30% 단축할 계획이다.

연구 사업 공동 기획, 조기 보급 사업화 과제 발굴, 재해 발생 및 농업정책 현장 지원 등도 공동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이

날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와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차장은 "공동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보급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연구와 기술 보급이라는 각 분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농업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농 두레온, 까다로운 진딧물, '저항성'이 원인

신규 계통으로 저항성 진딧물에도 우수한 효과

이상기후로 인해 진딧물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발생 밀도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재배 농가의 방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진딧물의 초기 방제 타임을 놓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

진딧물은 짧은 생활사와 빠른 번식력으로 인해 약제 저항성이 쉽게 형성된다. 이에 기존 제품의 방제 효과 저하에 대한 시설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진딧물이 단순한 흡즙 피해에 그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이라는 점이다.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제를 해야 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제거 밖에 방법이 없다. 시설 내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작물의 생산성과 상품성이 동시에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재배에서는 작물 정식 전후 체계적인

진딧물 방제가 필요하다.

두레온은 (주)경농(대표이사 이용진)이 2024년 출시한 신규 계통의 살충제로, 기존 약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진딧물에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해충의 현유기관(균형·중력·운동 감지에 관여하는 기관)을 교란하는 작용기작을 통해 진딧물을 치사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또한 물에 잘 녹는 특성으로 뿌리를 통한 약제 이동성이 뛰어나고, 침투이행성이 우수해 토양처리만으로도 지상부를 가해하는 해충 방제가 가능하다.

약효 지속 기간도 길어 정식 전 처리만으로도 진딧물 방제 효과가 우수하다. 아울러 꿀벌에 대한 영향이 적어 시설 내 다양한 작물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경농 두레온(경농 제공)



▲연구개발-기술보급 공동협의체 출범식 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대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2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e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etimes.com
 자매지: 농업경제
 발행간: 편집인
 편집장: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 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